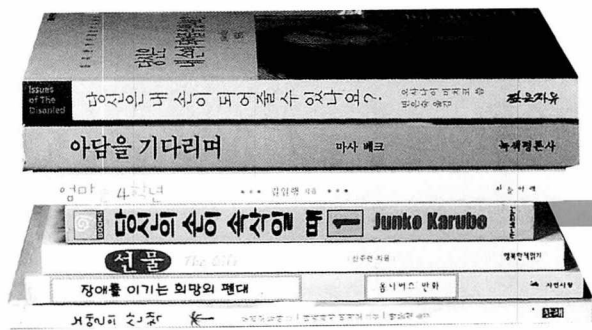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 깨우친다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 돕는 책들



장애인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책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어린이 책과 비소설 분야의 책들이 대부분인데, 이 책들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 체험담을 담거나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생활상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생산적으로 풀어쓴 지침서와 장애인들이 직접 그린 만화모음집도 출간됐고, 수화 만화집과 청각장애인이 주인공인 만화책도 나와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성공담이나 위인전에서 탈피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책들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먼저 어린이책은 《헬렌 켈러》류의 위인전을 탈피한 책들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끈다. 《노엘의 산책》(루리코 듀아·다카하시 미치코, 박문성, 창해),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존 버닝햄, 이진수, 비룡소) 등의 그림책과 《아주 특별한 우리 형》(고정욱·송진현), 《안내전 탄실이》(고정욱·김동성, 이상 대교출판),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이금미·원유미, 푸른책들), 《꿀찌를 하더라도 달려보고 싶어》(홍기·정수영, 여명미디어) 등 창작동화가 출간됐다. 특히 국내 작가의 창작동화만도 10여권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장애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교출판 편집부 조주영씨는 “국내 작가의 글은 우리 정서에 맞다. 또 위인전기에 대해 독자들은 ‘성공담’ ‘고난 극복기’ 등 선입견이 있어, 장애를 다루는 비슷한 책이어도 위인전기는 더 이상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없다. 독

자의 관심을 끌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창작동화가 많이 출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정서에 맞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비소설 부문에서 가족의 장애를 다룬 체험담만 보더라도 《엄마는 4학년》(길일행, 하늘아래), 《선물》(신주련, 행복한책읽기)과 《아담을 기다리며》(마사 베크, 김태언, 녹색평론사)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엄마는 4학년》과 《선물》이 각각 다운증후군과 뇌성마비에 대한 친절한 설명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소년인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룬 《아담을 기다리며》는 우리에게 낯선 ‘신비체험’을 소개하는 데 치중한다.

《엄마는 4학년》과 같은 체험담은 장애를 소개하는 딱딱한 전문서적도 아니고, 생활에서 터득한 의학 지식을 동원해 자연스레 장애의 상태·반응·과정 등을 세세하게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비장애인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서만 장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를 다루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만화책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의 손이 속삭일 때(전10권)》(가루베 준코, 김기숙, 서울문화사), 《사랑의 집(전7권)》(야마모토 오사무, 대원)가 대표적이다. 《당신의...》는 여성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사랑의 집》은 장애아와 그 부모들이 ‘도토리집’이라는 자립기관을 일군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냈다.

최근 출간된 《당신은 내 손이 되어줄 수 있

나요?》(오사나이 미치코, 변은숙, 깊은자유)는 앞의 두 책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장애복지현장을 보여준다. 이 책은 ‘흡족한 케어를 받기 위하여’라는 부제대로 장애인을 돌보는 데 지침이 될 전문서다. 뇌성마비에 언어장애를 지닌 지은이가 “케어를 받는 데 프로”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이고 만족스런 장애인 돌보기를 목적으로 출간했다. 장애인복지관련서적들은 대부분 비장애인 시각에서 씌어진 데 비해 이 책은 장애인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장애인의 실상 바로 보여주는 책 출간돼야

다종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 책들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는 별개 문제처럼 보인다. 조주영씨는 “작품을 검토한 장애인들로부터 ‘우리 현실과 다르다’는 평을 들었다”며 집필 전에 세밀하게 취재할 것을 당부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정책팀장은 “장애인을 다룬 책들이 많이 출간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묘사한다면 ‘더불어 사는 삶’을 목적으로 출간되는 책들의 취지가 오히려 훼손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규 사무국장도 “장애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장애인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는 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탠다. —차정신 기자